

B9:DA

2020 BUPYEONG CULTURAL FOUNDATION MAGAZINE

vol.11

부평구문화재단

vol.11



부평구문화재단

BUPYEONG CULTURAL FOUNDATION

B9:DA

보
다

보
다
B9:DA

BUPYEONG CULTURAL FOUNDATION MAGAZINE

부평구문화재단

편대식, Untitled(cell), 2016, 한지에 연필, 가변크기



© 방영문

BODA ESSAY

예술가와 관객이 호흡하던 객석은 텅 비었고,

무대를 바라보는 카메라만 가득합니다.

영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담아보지만

그럴수록 함께 호흡하던 그 순간이 더 그리워집니다.

모두가 건강한 일상을 되찾는 그 날

가장 먼저 찾아오는 곳이 될 수 있도록

문화로 행복한 부평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바라보다

05

CULTURAL CITY 01

문화로 행복한 도시,
문화도시 부평

09

CULTURAL CITY 02

같이 걷고, 대화를 나누고,
도시의 변화를 꾀하다
'시민기획단 부평뮤즈'

11

PEOPLE 01

5인 5색, 부평영아티스트5기
선정작가 인터뷰

15

PEOPLE 02

만나지 않고 어떻게 예술을 말해?
<온라인 Pitch&Meet 프로젝트>

생각하다

21

CULTURE THINKING

2020 부평문화포럼 라운드 테이블
<뉴노멀시대, 로컬리티 : 고민을
묻고 답하다>

27

COLUMN 01

기지촌의 삶을 기록할 거리의 박물관

31

COLUMN 02

열린 소통, 창조적 생태계를 꿈꾸는
부평구문화재단

들여다보다

37

ZOOM IN 01

<헛스윙밴드> 평론가 리뷰
- 스윙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41

ZOOM IN 02

우리의 일상이 잠시 주춤해도,
부평구 청소년들의 시간은
계속 흐른다

45

ZOOM IN 03

부평구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문화를 위해

47

ZOOM IN 04

책 읽는 부평, 그 속에서 찾아보는
가족의 의미

51

NEWS

언택트 생활문화축제
<따로 또 같이> 외

53

INFO

부평구문화재단 운영시설 안내

55

SUPPORT

부평구문화재단 후원회·
문화나비 소개



바라보다

CULTURAL CITY 01

문화로 행복한 도시,
문화도시 부평

CULTURAL CITY 02

같이 걷고, 대화를 나누고,
도시의 변화를 꾀하다
‘시민기획단 부평뮤즈’

PEOPLE 01

5인 5색, 부평영아티스트5기
선정작가 인터뷰

PEOPLE 02

만나지 않고 어떻게 예술을 말해?
<온라인 Pitch&Meet 프로젝트>

스트리트아트 갤러리 in 부평캠프마켓 ‘다시 여는 사진첩’ 中

© 유영호, 부평구문화재단 시민기자단 5기



문화로 행복한 도시, 문화도시 부평

글 최정환 부평구 문화도시 총괄기획가



2020년 부평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특화지역조성사업(부평 음악·융합도시 조성사업)의 마지막 해이자, 예비 문화도시로 2021년 법정 문화도시 지정을 준비했다. 그간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을 통해 부평역과 굴포천, 캠프마켓 일대의 주요 생활권을 대상으로 장소 기반의 거버넌스 구축, 핵심적 실천 역량(워킹그룹)의 조직화, 뮤직게더링을 통한 지역 뮤지션의 참여와 지역 안팎의 협력 네트워크 형성, 디지털뮤직랩(D-Lab) 운영을 통한 음악 생태계 마련 등 문화도시로 가는 길의 마중물을 조성했다.



지역 안에서 만들어지는 문화력을 가진 도시로

일제 조병창, 해방 후 주한미군 군수지원사령부 애스컴(ASCOM, Army Service Command)의 주둔, 70년대 이후 산업화 시대의 부평공단과 공장지대, 2000년대 서울의 베드타운 등 도시 환경 속에서 부평 지역의 문화를 만들어가기는 쉽지 않았다.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외생적으로 유입되고 형성된 혼종 다양성을 개방과 관용의 에너지로 바꾸면서 지역 문화의 동력원으로 활용하려고 한다. 특히 지역산업과 도시의 재구조화가 가파르게 진행되는 시점이기에 문화를 통한 삶의 재생은 시급하고도 절실한 과제이다.



서울 중심성 탈피, 부평 고유의 지역성 강화

부평은 서울 홍대 앞까지 자동차로 40분, 용산역까지 전철로는 33분 소요되는 거리에 있다. 서울에서 너무 가까이 지역 문화의 정체성과 문화생태계가 형성되지 못할 뿐 아니라 청소년,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 서울에서 활동하고 생활하려고 한다.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시민들이 문화를 통한 삶의 소확행을 느끼고 지역 문화에 자부심을 느끼도록 하고, 청소년과 청년들의 진입장벽이 낮은 비주류문화와 디지털 음악을 통해 서울로 흡수된 문화력을 역으로 부평으로 유입하려고 한다. 또한 인천 내 지역과 소통, 교류하며 지역의 열린 문화의 판을 형성하고자 한다.



문화 소비에서 창조적인 문화 생산 도시로

단일면적 당 세계 최다 점포를 보유하고 있는 부평지하상가 모두물은 대부분 의류, 잡화 등 생활 소비 수요에 의지하는 매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평문화의거리 일대 상권 또한 젊은 계층이 밀집하여 활력이 유지되지만 단순한 유흥소비에 편중된 특성이 있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휴업점포가 급격히 늘고 고용 위기도 심화하는 양상이다. 이러한 지역 현실에 대응하여 애스컴시티의 공간적 특성과 역사성, 그래피티, 디제잉, 스케이트보드 등 비주류문화 기반의 활동을 매개로 지역의 젊은 문화기획자 및 뮤지션, 아티스트들이 콘텐츠를 창제작하고 질 높은 문화소비, 문화산업을 양성하면서 상권 활성화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과 문화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한다.



행정 주도에서 시민의 자치권 확보

부평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기본 체계는 상향식 시민주도형 문화거버넌스를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지향은 거버넌스를 제도화하는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제정, 시민기획단 부평뮤즈를 통한 시민들의 자기주도적 문화 활동, 소통과 공유를 통한 활동 역량들의 공진화와 사업 주체로의 성장, 청소년들의 참여 활동, 지역 뮤지션과 예술인들의 사업 주체화 등으로 이어진다. 더 나아가 미래에는 상향식 사업 체계를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 선순환 활동 구조를 구축하여 시민이 도시를 변화하는 문화도시 부평을 기대한다.



같이 걷고, 대화를 나누며 도시의 변화를 꾀하다 '시민기획단 부평뮤즈'

글 김가람 부평구문화재단 문화도시추진단

2018년과 2019년에 걸쳐 진행되었던 '시민협력단 부평뮤즈'의 뒤를 이어, 올해는 시민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시민기획단 부평뮤즈' 사업이 진행되었다. 부평에 거주하며 누구보다 더 자세히 들여다보았을 부평의 모습을 통해 다양한 지역의 문제들이 제시되었는데, 부평의 문화와 밀접한 다양한 문제들을 직접 제시하고 탐구하는 모습을 통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했던 부평뮤즈의 모습을 한 번 들여다보았다.

'시민기획단 부평뮤즈'는 올해 '문화로 행복한 부평 만들기'를 주제로 시민이 직접 도시의 문제를 제안하고 해결하는 방안을 기획하는 과정을 거쳤다. 지난 6월 3기의 발대식을 시작으로 시민이 직접 문제의 원인을 찾기 위해 도시탐사를 진행했다. 도시탐사를 통해 원인 분석이 완료된 문제는 의제 발제를 통해 구체화 되었는데, 3기가 발제한 의제는 부평 변화가 쓰레기 문제와 청년 예술인 소통 문제, 부평 거리문화 향유, 부평 내 지역 문화예술 기반 만들기, 부평 랜드마크 홍보 총 5개였다. 이후 해당 의제의 해결 방안에 대한 공모를 통해 4기를 선발했다. 4기 활동은 총 47명(3기 16명, 4기 31명)의 시민이 참여했으며, 의제별 전문가와 함께 도시탐사·탐구를 진행했다. 쓰레기 문제에 대한 의제는 제로웨이스트 매거진 'SSSL'의 배민지 편집장과 알맹상점의 양래교 대표가 함께했고, 청년 예술인 소통에 대한 의제는 문화도시추진단 박재은 팀장과 유경희 부평구의회원이 지역 문화 기반 의제는 플랜비문화예술협동조합 이승욱 대표와 설치미술작가 장시재, 거리문화 향유 의제는 서울거리아티스트 협동조합 최나겸 이사장, 랜드마크 홍보 의제는 여행작가 오나래와 부평지하상가 모두물 박원용 담당자, 시민 의제 관련 워크숍 및 자문에 유진 희망제작소 정책실험 팀장이 참여해 '시민기획단 부평뮤즈'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확장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그 결과 시티컵(City Cup), 타겟팅 쓰레기통 등 의제별 총 5개의 참신한 사업이 제안되었다. 이 계획들은 문화도시 부평 사업에 시민이 지속적이고 다양한 창구로 참여할 수 있도록 파일럿 사업을 실행하며 이어나갈 예정이다. 또한 시민이 직접 도시를 변화시키는 자기 주도적인 시티랩(City Lab)을 구축하고 '시민이 직접 만드는 문화로 행복한 문화도시 부평'을 함께 실현해 나갈 것을 기대해본다.



3기 발대식
영상



3기 탐사활동
영상



4기 발대식
영상



3,4기 통합
해단식 영상



5人 5色, 부평영아티스트 5기 선정작가 인터뷰

지난 11월 19일부터 12월 13일까지 부평아트센터 갤러리꽃누리에서는 ‘부평영아티스트 5기 선정작가전’이 열렸다. 2015년부터 진행된 ‘부평영아티스트 선정작가전’은 국내 시각예술 분야의 역량 있는 신진작가를 발굴하기 위해 부평구문화재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올해는 총 5인의 신진작가들이 선정되었다. 선정된 작가는 전시기회와 50만원의 상금을 지원받았고, 전시 중 진행된 관람객 투표를 통해 편대식 작가가 POP Prize로 선정되었다. 이번 선정작가전을 기념해 남오일, 박지혜, 이웅철, 편대식, 한수지 5명의 선정작가를 만났고 그들의 작업세계와 향후계획에 대해 들어보았다.



| 남오일 |

흑백필름으로 서울을 탐구하는, 남오일

서울을 주제로 다큐멘터리 사진 작업을 하는 남오일 작가는 서울의 관광객으로 마주했던 신기하고 화려했던 서울이 점차 다른 모습으로 다가오기 시작해 그 모습을 촬영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어렸을 적 서울에 대한 동경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카메라를 사주시면서 촬영을 시작했다고 말하며, 이번 전시는 <On the road, Seoul>이라는 큰 주제 안에 소소하게 서울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작은 주제들에 담겨있다고 말했다. 대도시의 화려함과 다른 이면의 것들을 흑백필름으로 담은 것인데, 아무곳에서나 잠을 청하는 노숙인들의 모습부터 혼자 패스트푸드 음식을 먹으며 바쁘게 통화하는 사람들, 같은 모습을 하고있는 직장인들 등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사진 곳곳에 숨겨진 요소나 제목을 특정 지역으로 지은 만큼 제목도 유심히 보면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오일 작가는 사진이 사람들의 생활을 기록해온 만큼 자신이 찍고 있는 사진들도 나중에 서울에 대한 한 시대의 기록으로 남겨졌으면 한다고 본인의 작업 방향을 설명했다. 앞으로도 서울이라는 도시를 계속 기록할 것이라고 밝히며, 도심 속 거대한 자연인 한강에 대한 작업물과 을지로에 있는 방산시장에서 생업을 이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받아 사진으로 기록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남오일작가



| 박지혜 | 단 한 번이라도, 2020, 커튼에 털실로 자수



박지혜작가

다양한 가치를 생산하고 공유하는, 박지혜

조소와 입체조형을 전공한 박지혜 작가는 본인을 여기저기 떠돌면서 미술을 매개로 자리를 펼치거나 발언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세상과 소통하는 방식으로 손을 주로 사용하며 디자이너, 공간제작자, 목수, 선생님과 같은 여러 직종에 걸쳐서 다양한 가치를 생산하고 공유하는 삶을 지향한다고 말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전공을 정한 뒤로 계속 만드는 일을 하

고 있는데 상당한 부피를 가진 경우가 많다고 하며, 이상적인 목표를 꿈꾸는 현실의 질서와 제도, 양식, 단위 같은 다수의 편의를 위한 사회의 질서를 작업의 소재로 사용한다고 덧붙였다. 본인의 작품이 하나의 이미지로 역기가 어려운 편이라 작품이 제작된 시점에 세상에는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살펴봐달라고 했다. 박지혜 작가는 홍익대학교 조소과와 한국예술종합학교 입체조형을 졸업했고, 송은아트큐브, 갤러리 조선 등 6회의 개인전과 의정부미술관, 세화미술관 등에서 진행된 단체전에 참여한 바 있다.



| 이웅철 | 유령조각 연작, 2020, PLA에 유채, 가변크기

목판위에 연필로 시간을 누적시키는, 현대식

시간을 물질화시키는 작업을 하는 현대식 작가는 주로 연필이라는 재료를 사용해서 검은 화면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한다. 나무판의 표면에 아크릴 도료로 밑작업을 하고 그 위에 연필로 칠해 거울처럼 매끈한 표면의 질감을 만드는 것인데 작가는 이 작업을 시간을 물질화시킨다고 표현했다. 이 작업을 통해 기록된 검은 화면은 과거의 시간이 굳어진 표면으로 멈춰있지 않고, 그 화면이 마주하는 현재의 시간과 공간을 표면 위에 비추게 되는데, 이 작품이 과거와 현재, 본인의 흔적과 타인의 이미지 등이 겹쳐지며 이런 경계들이 모호해진다고 말했다. 작품

환영적인 요소들을 미술로 드러내는, 이웅철

이웅철 작가는 주로 영상과 조각을 다루며 작업을 진행한다. 환영적인 요소들을 미술의 방식으로 드러내는 작업인데, 이번에는 <유령조각 시리즈>라는 작품으로 크로마키 기법을 활용해서 조각들이 사라지는 작업을 진행했다고 한다. 이 작업을 통해 관객들은 현실에 존재하는 조각의 모습과 영상을 통해 조각이 부재한 모습도 볼 수 있을 텐데 이런 부재의 상황들을 통해 코로나-19로 우리가 비대면의 사회에 처했다는 것과 물리적인 경험들이 사라지는 상황을 느꼈으면 좋겠다고 했다. 작가는 앞으로도 주변과 일상에서 위화감이 드는 요소들을 찾아다니며 작업을 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리고 모든 게 가벼워지는 시대에서 조각이 갖는 물질성과 무게감, 그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도 연구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대식작가

을 통해 관객이 자신과 타임이 만나는 접점을 경험하고 현재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 작업을 확장하는 것이 일차적인 계획이고 이렇게 매 순간들을 기록하는 작업을 통해 긴 시간의 축적을 만들고 공간을 채우며 새로운 시간과 지나간 시간의 혼재, 비가시적인 시간을 가시적으로 변화시키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까지 총 3개의 파트로 나누어져 있다고 한다. 관람객들이 이 작업을 통해 내 뇌가 기억하는 것과 나를 대신해서 인터넷 데이터가 기억하는 두 개의 관계들을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작업에 대한 설명을 들을수록 작가의 세계관과 앞으로의 행보가 더 궁금해졌다. 그녀는 여러 학문을 융합하며 작업을 하다보니 본인이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을 넘나드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하며, 상대성이론과 양자물리학, 그 관계를 잇는 초끈이론을 기반으로 한 작업도 진행하고 싶다고 했다. 그리고 인터넷 공간과 물리공간을 연결하는 끈을 찾아서 <진동교향곡>이라는 작업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미디어를 통해 시각예술을 하는 한수지

한수지 작가의 작업은 다양한 논문이나 문헌, 이미지 등을 조사한 후 자신만의 방법으로 분류를 시키고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진행된다. 이 과정을 통해 상상의 내러티브를 만들고, 그 스크립트들이 영상 혹은 미디어 설치로 전환이 되어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선보인 <잊혀지는 법>이라는 작업은 뇌 기억 처리 과정과 데이터의 메모리 과정을 기반으로 만든 작업이라고 소개했다. 메인 영상 작업인 <디지털 파놉티콘에서 해방되기>부터 QR코드가 삽입된 무빙포스터 작업 <터미널-제3차 기억의 공간으로>, <웹 인스톨레이션 가중치 변경



| 한수지 | 잊혀지는 법 디지털 파놉티콘에서 해방되기, 2020, HD 비디오

부평영아티스트 선정작가
5인 인터뷰 영상





만나지 않고 어떻게 예술을 말해? 온라인 Pitch&Meet 프로젝트

"내가 하고 싶은 예술 들어볼래?"



글 박지연 부평문화재단 기획조정팀 | 사진 유광식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파견예술인 조은성(영화감독), 고진이(미술가), 유광식(사진), 조경아(작가), 황선화(배우)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의 모든 일상을 바꿔놓았다. 사람이 모여 만나는 행위 자체가 공포와 질책의 대상이 되면서 문화예술계가 가장 먼저 빗장을 걸어 잠그고 그 어느 때보다 침체되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처음으로 맞닥뜨린 이 낯설고도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문화예술과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고,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 꺼질 듯 꺼지지 않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유행이 이어지던 지난 7월 '온라인 Pitch&Meet 프로젝트' 공모가 시작됐다. 코로나만큼이나 낯선 이름의 프로젝트는 '부평문화상상테이블' 사업으로 5명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파견예술인이 참여해 기획됐다. 만나지 않고 예술을 만나야만 하는 시대, 위기 속에서도 문화예술을 꿈꾼 이들의 발자취를 살펴봤다.



이번 프로젝트는 공간과 대면 활동의 제약을 극복하고, 부평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예술인들이 능동적으로 자신의 예술 활동과 기획안을 제작·홍보하여 자발적으로 활동 저변을 넓힐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양한 예술영역의 지역 예술인 9명이 공모에 선정되었고, 이들의 예술 활동 기록을 담은 영상과 포트폴리오 책자를 제작했다. 기획안 작성과 피칭 노하우를 알려주는 교육 수강과 기획안 컨설팅을 받은 뒤 지난 11월에는 대면 피칭행사를 대체하여 예술인이 직접 자신의 기획안을 발표하는 '온라인 Pitch&Meet' 촬영을 마쳤다.

조은성 : '피칭'은 투수가 공을 던지는 행위를 뜻해요. 영화 산업이나 스타트업 및 창업과 관련해 기획단계의 프로젝트를 투자자나 제작자에게 소개하는 일종의 투자 설명회를 '피칭'으로 부르며 체계화해 왔어요. 이러한 피칭행사 아이디어에 착안해 자신의 작품과 예술을 직접 기획하고 소개하는 프로젝트를 기획했습니다.

예술인이 직접 자신을 알릴 수 있는 활동과 예술 기획을 소개하는 과정은 말과 글처럼 간단 명료하지 않다. 약 4개월 간 파견 예술인들과 참여 예술인들의 끊임없는 인터뷰와 기획안 컨설팅 과정을 거쳐 프로젝트를 완성했다. 참여 예술인뿐만 아니라 프로젝트를 기획한 파견 예술인에게도 기획안 작성은 낯선 과정이었다. 참여 예술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프로젝트 진행에 앞서 오리엔테이션과 기획안 작성 교육을 함께 진행했다.

유광식 : 예술인에게 '피칭'이라는 속성을 이해시키는 데에 중점을 두고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어요. 사업의 개요, 진행 일정 등을 설명하는 자리로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과 주최측이 교류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리였다고 생각해요. 쉽지 않은 과정인 만큼 서로의 참여의지를 확인하고 앞으로의 활동을 약속하는 자리이기도 했어요.



코로나-19로 변화된 예술인과 문화예술의 양상을 살펴보고 프로젝트의 방향성과 기획의도를 되짚어 보기 위한 간담회도 열렸다. 재단 사업담당자, 파견예술인, 지역예술인이 모여 예술인의 눈으로 바라본 비대면 예술 세대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 등 현실적인 토론이 이어졌다. 간담회 내용은 프로젝트 결과물을 담아 발간하는 책 '부평, 아홉 개 예술인의 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광식 : 요즘에는 지원금을 받기 위한 프로젝트에 예술인이 몰리는 양상이예요. 다양한 기관에서 비대면 온라인 문화예술 사업이나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지만, 창작활동 지원이 아닌 지원금 배분을 위한 명분상의 프로젝트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솔직히 이러한 어려운 상황들이 낯설지 않고 익숙해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닥칠 때



마다 예술인은 가장 먼저 활동을 멈추고 움츠릴 수밖에 없거든요.

조경아 : 코로나-19로 다같이 힘든 상황이지만 지원 문제라던가 대책마련을 위한 논의에서조차 예술인은 제외되거나 후순위로 밀려난다고 생각해요. ‘이런 시기에 굳이 예술을 한다고? 이렇게 힘들 때 문화예술까지 신경을 써야하나?’라는 인식이 기저에 깔린 거죠.

황선화 : 최근 트렌드처럼 자리잡은 문화예술의 영상화·온라인 전환은 절대적인 대안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작품을 찍은 라이브 영상을 본 것이지 직접 그 작품을 봤다고 표현할 수는 없거든요. 그저 또 하나의 다른 장르가 생겨났을 뿐이라고 봐요. 소통할 수 없다면 왜 굳이 연극을 봐야 할까요? 집에서 TV로 드라마를 보면 되죠. ‘온라인 송출로 과연 연극이라는 장르의 매력을 온전히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이번 프로젝트에서 예술인은 직접 자신의 활동과 작품, 작업방식을 설명하기 위해 스튜디오 촬영과 작업 현장을 오가며 인터뷰를 마쳤다. 촬영 사이사이에도 기획안을 제출하고 피드백을 받아 수정하는 과정이 이어지며 바쁜 여름과 가을날을 보냈다. 피칭행사 멘토 및 강사로 활동한 크랭크업영화사 김지연 대표를 초빙해 예술인의 기획안 작성을 도왔다.

고진이 : 기획안 작성 교육과 컨설팅의 경우 해당 경력이 많은 전문가를 섭외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해 전문 강사님을 모시게 됐어요. 참여 예술인들의 만족도도 높았고요.

조경아 : 처음에는 ‘기획안’이라는 형식이 여러 가지 면에서 장벽으로 느껴졌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예술인들에게는 예술작품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자신의 작품을 설득시키는 일이 익숙하지 않거든요. 형식이나 규칙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작품을 어필할 방법을 컨설팅을 통해 배울 수 있었어요. 다만, 그 과정에서 코로나 19 영향으로 모든 컨설팅 방식이 비대면으로 바뀌면서 좀 더 밀도있게 교육을 진행하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아요.

유광식 : 예술인이 자신의 작품 세계를 노출한다는 게 사실 어려운 일이죠.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고 해서 단번에 이뤄질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경험으로서의 의미가 중요하죠. 예술의 범주가 넓지만, 피칭을 위한 축약과 확정이라는 작업이 필요했고 무엇을 어떻게 주장할 것인가를 조율하며 컨설팅을 진행했어요.



기획안 발표 촬영을 위해 파견예술인들과 리허설도 진행했다. 처음 해보는 PPT 발표에 긴장이 되었지만, 리더 예술인 조은성 감독의 지휘 아래 발표 내용, 시간 등을 점검하며 촬영 당일 까지 연습과 수정을 거듭했다. 피칭은 영화감독 겸 방송인 봉만대씨가 진행을 맡아 참여 예술인들의 긴장을 풀고 용기를 북돋웠다. 발표를 통해 코로나블루 극복 감각 이미지 키트, 리사이클을 활용한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 도시 속 하트를 재조명하는 다큐멘터리 제작 전시 등 예술인의 다양한 활동 및 작품 기획을 미리 만나볼 수 있었다. 발표 영상은 문화예술 관련 기관과 관계자들에게만 공개되며, 인터뷰 영상 및 책자는 재단 유튜브 채널을 비롯한 SNS, 부평구 내 독립서점 등 다양한 곳에서 누구나 볼 수 있다.

유광식 : 예술인들께서 서로서로 격려하며 마지막 쇼를 위한 기획안 구성에 열과 성의를 다해주셨어요. 무엇보다 원석에 가까운 주제를 일반인도 쉽게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해내는 과정을 만족해하셨던 것 같아요. 마치 재미난 시소놀이를 한 것처럼 즐거운 과정이었습니다.

조경아 : 예술인이 직접 자신의 기획안을 가지고 실제 발표까지 해볼 수 있었다는 점이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고 싶은 일을 하는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이 왜 하고 싶은지, 어떤 이들에게 필요한 일인지 설득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이제는 모두가 변화의 방법을 모색할 수밖에 없겠죠. 이제는 내 주위 내 옆이나 가까이에서 예술을 즐겨야 한다고 생각해요. ‘온라인 Pitch&Meet 프로젝트’처럼 거꾸로 예술기획 아이디어를 지역 예술인에게 받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위에서 먼저 정해져 내려오는 기존 방식을 벗어나 반대로 실질적으로 예술활동을 펼치고 있는 예술인에게서 주민이나 예술인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사업 운영 제안을 끌어올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번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된 이유이기도 하죠.



생각하다

CULTURE THINKING

2020 부평문화포럼 라운드 테이블
<뉴노멀시대, 로컬리티 : 고민을
묻고 답하다>

COLUMN 01

기지촌의 삶을 기록할 거리의 박물관

COLUMN 02

열린 소통, 창조적 생태계를 꿈꾸는
부평구문화재단



2020 부평문화포럼_라운드 테이블

<뉴노멀시대, 로컬리티 : 고민을 묻고 답하다>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는가, 또 누구와 함께 가야하는가

| 일시 2020년 11월 5일(목) 오후 2시
| 장소 부평아트센터 호박홀
| 주관 (재)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재단
| 사회 우사라 부평구문화재단 기획조정팀
| 토론
공주형 한신대학교 평화교양대학 교수
전승용 인하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교수
채은영 임시공간 대표
한상정 인천대학교 문화대학원 교수

코로나-19로 모든 일상이 멈추고, 문화생활도 어려워진 삶 속에서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 모두 깊은 고민을 하고 있다. 많은 것이 달라진 상황 속에서 문화예술을 통한 치유와 회복, 사회적 가치, 지역문화재단의 역할, 지역 문화의 정체성 등에 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10월부터 11월까지 총 6회에 걸쳐 열린 '2020 부평문화포럼 라운드테이블 <뉴노멀시대, 로컬리티 : 고민을 묻고 답하다>' 6회차의 모습이며, 5회차까지 논의된 결과들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정책과 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이었다.



상시적 재난·감염병 사회에서 예술의 존립을 위해 필요한 대응 전략과 문화재단의 역할

우사라 TALK

1차는 지역주민, 2차는 지역예술가 그룹, 3차는 재단 내 워킹그룹과 지역문화재단 관계자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으로 구성했습니다. 1차에서는 부평구문화재단 홈페이지 회원, 부평구생활문화동호회 회원, 부평구문화재단 시민회원 등 지역주민 다섯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코로나-19가 발발하고 난 뒤 정부의 방역 조치에 의해 가장 먼저 문을 닫게되며 소극적인 대응을 한 것에 대한 불만도 있었고, 내년까지 바이러스가 지속된다는 가정하에 재단에 바라는 점과 사업 방향에 대한 아이디어도 제시해주셨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에는 지역을 벗어나 외부로 나가고 더 큰 공간으로 많이 모였다면 현재는 각자의 거주 지역 안에서 문화생활을 향유하고 싶은 욕구가 더 크게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더욱 밀도있게 지

역 안에서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역에 술가분들은 비대면 시대에 관객과 소통할 수 있는 독특하고 독자적인 예술, 교육, 콘텐츠 개발과 관객 개발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더불어 지역예술이 살아야 지역주민도 예술과 함께 문화도시로 성장하는 가운데 있으니 지역예술가와 상생할 방법들을 연구하고 같이 나아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3차로 진행된 재단 내 워킹그룹 토론에서는 1차와 2차에서 나온 의견들을 토대로 리스크는 가장 적게하되 다른 재단과 차별화된 지역의 특색을 살려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을가에 대해 논의를 했습니다. 지역의 성격을 정하거나 개별성과 다양성을 확인하는 데만 그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각과 부평만이 가진 지역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채은영 TALK

코로나 시대에 지역주민들이 팬데믹을 겪으면서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제약으로 답답함과 갑갑함을 느꼈던 것에 깊이 공감합니다.



< 한상정 인천대학교 문화대학원 교수 >

공공기관과 미술관 등 대형 공간에서의 프로그램은 제약이 많아서 민간의 공간으로 우리의 관심을 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시각 예술분야를 예로 들면 부평구문화재단은 공간을 가지고 있어서 공간 중심으로 사업이 편향될 수밖에 없는데, 전시를 기획하고 주민들에게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재단의 전시장으로만 한정 짓지 말고 민간 전시장, 북카페 등 다양한 민간의 기관들이 지역에 드러나는 형식으로 공간을 발굴하고 그 전시를 홍보하거나 지원해서 지역주민들이 동네에서 산책하듯 다양한 문화예술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의 신생 공간이나 잘 보이지 않지만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공간과 매개자, 기획자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실제 그 공간에서 기획하고 진행된 공연과 전시외에도 재단에서 이루어졌던 양질의 작업이나 그 작가의 워크숍을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동네에서 문화예술활동이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상정 TALK

사업담당자의 1~3차 브리핑 가운데 매우 흥미로웠던 점은 지역 예술가들에 대한 지원 형태를 예술가들이 직접 공연이든 전시를 기획하고 그에 따른 사업을 직접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형태로 도입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다른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지원 사업 중 의미있게 지켜본 사업은 서울시와 경기도가 예술가들에게 특정 사업이 아닌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일종의 예술가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인 셈이죠. 작가들이 각종 공모를 통해 지원 사업을 따내는 역량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협동조



< 채은영 임시공간 대표 >

합을 만들고 기획안을 내고 사업을 하는 과정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특징은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작가들이 모여 조합을 만들고 사업을 구상하고 그들이 직접 만들어나가는 사업이다 보니 결과 중심이 아니라 각각의 과정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라는 의미가 가장 큼니다. 부평도 장기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각각의 과정을 중심으로 지원 사업을 진행해나갈 수 있는 유연함이 필요할 것입니다.

채은영 TALK

코로나-19로 수많은 긴급성 지원 사업들이 만들어졌지만, 그때마다 긴급성 신규 사업을 만들어 진행하는 지원 사업의 방식이 과연 적절한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 생각됩니다. 긴급성으로 지원되는 사업의 공모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예술활동 유지를 위해 그 공모 사업에 지원을 해야하는 예술가의 입장에서는 때마다 각각 다른 계획을 쓰고 지원서를 작성하고 정산을 하고, 그것에 맞게 지원을 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광역이 아닌 기초 지역의 재단에서는 지역 안에서 지역 예술가가 지속가능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게 한다면 짧은 호흡의 지원사업이 아니라 활동을 위한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역에서 창작활동을 하거나 연구 또는 사람들과의 소통 등 기반을 만들어주는 지원제도에 초점을 맞출 필요도 있습니다. 과연 상황에 따라 긴급 지원사업 형태가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원래 하려던 사업을 못 하게 됐으니 온라인이든 다른 방식이든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보다 예술가들의 활동 자체를 지지하고 지원해 주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할 수 있는

전시나 공연 등의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의 전환도 필요하겠습니다. 부평이라는 지역의 지역성을 생각해보면 유연하거나 민첩하지 않더라도 느리지만 무게감이 있도록 다른 방향의 지원 방법을 이루어내는 것이 부평의 캐릭터가 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지역의 로컬리티와 기초 재단의 캐릭터대로 지원과 정책을 이루어내는 것이 재단에서 중요한 방향이나 가치로 여겨야 할 부분이라는 생각입니다.

공주형 TALK

팬데믹을 겪으며 로컬리티라는 것이 대두되었는데 사실 기초문화재단이기 때문에 문화정책성과 로컬리티에 대해 핵심 키워드로 계속 고민을 해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때도 지역문화분권과 자치를 정책 핵심키워드로 얘기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정책공포를 하고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틀 안에서 한 번쯤은 검토해야 하는 내용이 로컬리티, 자치, 문화분권 등일 것 같은데, 코로나19를 겪으며 가장 필요한 부분보다 팬데믹 등의 시급성 문제 제기가 우선 논의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지역 연계 프로그램 진행했던 기관들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는데, 앞서 채은영 선생이 얘기했던 것처럼 특수한 상황의 변화에 대한 변수를 내려놓고 지속가능성을 갖고 장기적으로 지원을 해줄 때 단계별 지원제도는 체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지속가능성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유연성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사업을 지속하고 있었는데 변수가 생겨 변경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얼마만큼 유연하게 대응하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꼭 코로나-19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논의를 해



< 공주형 한신대학교 평화교양대학 교수 >

야하는 문제로 넘기면 안 될 것 같고, 기초문화재단이 어떠한 역할들을 하고 어떤 사업들을 진행해야 할지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점검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전승용 TALK

부평구문화재단은 인천 지역의 서구, 연수구와는 달리 시설, 공간 중심의 기초문화재단입니다. 공간 기반으로 지역사회에서 사업을 해나가는 기초문화재단으로 현실적으로 지원 사업을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현실적인 문제를 통해 공간 베이스로 운영되는 재단의 한계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상시적 재난이라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콘텐츠를 만들어 대비를 해야 할 것 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또한 직접 지원에 대한 선택적 고민과 비대면 상황에서 어떻게 공간을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부수적인 고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른 기초문화재단들에 비해 풍부한 공간 자원을 가지고 있는 부평구문화재단은 코로나-19로 부평아트센터를 비롯한 부평구립도서관, 부평문화사랑방 등 많은 운영시설이 문을 닫게 되었는데 이 공간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평구문화재단 경우에는 지원사업은 생활문화와 문화예술 교육 정도의 사업이 있고 예술가들에 대한 직접지원은 신진작가 발굴 지원 정도가 전부인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시설 중심이 아닌 직접지원 사업을 진행할 것인가 만약에 진행하게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인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상시적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가진 이 시설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혹은 폐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어떻게 보완해나가야 할 것인가 이



< 전승용 인하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교수 >

런 부분이 과제일 것 같습니다.

공주형 TALK

대규모 시설을 가지고 있는 곳들이 모두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비어있는 그 공간이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없으니 운영성과 달리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 논의중입니다. 예를 들면 전시 공간을 소수의 작가에게 창작 공간으로 제공하는 등 이런 방식 등에 대한 일종의 기능 전환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평구문화재단은 기초문화재단이라 공간의 기능 전환을 논의한다면 매우 많은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생활문화동호회나 문화예술교육이 활발히 진행된다면 그 사업 목적에 맞게끔 공간의 기능 전환에 대한 논의와 사업들에 대한 변화의 시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채은영 TALK

이론적인 얘기일수도 있겠지만 로컬리티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최근 문화분권과 자치에 관한 화두가 지속되면서 지역이 중요해지고 지역성이라는 것이 강조되고 있는데 코로나-19 이후의 지역은 이전의 지역이 가진 특성과 궤차적이거나 과다대표된 지역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팬데믹 이후 모든 세계는 연결되어있다는 것을 실감하였고, 지역을 강조하는 부분에서 기존의 지역을 소비하거나 재현하는 방식의 지역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평구 문화재단에서 생각하는 로컬리티는 모두를 위한 지역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은 삶을 정주하는 입장에서 시민이겠지만 지역의 예술가들은 풀이 뻗히고 얼마 되지 않는 지원사업들로 소비되는 경

향이 있습니다. 지역에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정주할 수 있는 시민들과 예술가들과의 관계 맺기는 좀 더 열어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의 아카이빙이 굉장히 강조되는데 지역의 문화자산을 아카이빙하는 데 있어서 시민들은 자료와 소재를 제공해주는 대상자였던 경향이 짙었는데, 부평은 그 시민들이 대상자나 제공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시간을 살아온 그 사람들이 지역의 자원을 기록하는 주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워크숍이나 문화예술교육, 생활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기록하는 행위와 결과물 자체가 부평의 다양한 아이덴티티가 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평창동에 서울시립미술 아카이브관이 생기는데 시민아카이브 양성과정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디지털 아카이브든 물리적 아카이브든 자신들이 기록자가 되고 연구자가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술가들과 협업해서 어떠한 것을 만드는 개념이 아닌 모든 시민이 다른 연구자와 기록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부평 또한 시민들 한 명 한 명이 기록자가 되어 아카이브들이 모이면 특정한 공동체나 역사적 사건들의 기록을 하며 모두를 위한 부평이 되고, 모두를 위한 로컬리티로 확장할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기초지역에서 지역을 강조하는 방식과 지역을 위해 기획하고 창작하는 방식,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신의 개인사가 지역의 역사가 될 수 있고 지역성으로 확장될 수 있고 모든 것이 관계적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부평이라는 지역의 정체성에 대해 서울과 인천의 경계에 있는 위치와 그로 인한 개방성, 유연성, 확장성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역할을



▲ 지난 10월 17일에 진행된 'Section1, 지역사람의 생각과 기대' 토론 모습



▲ 지난 10월 20일에 진행된 'Section2, 지역예술의 가치와 미래' 토론 모습



▲ 지난 10월 27일에 진행된 'Section3, 지역문화의 전략과 과제' 토론 모습

하는 향유자로서의 시민이 아니라 기록자로서 시민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지점입니다. 이런 시민들의 역할을 이끌어내기 위해 예술가들은 촉진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에서 시민과 예술가들의 관계성을 재구성해주고 이끌어내는 역할을 부평구문화재단이 해준다면 재미있는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

공주형 TALK

로컬리티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가 중요한데 앞서 이야기되었던 것들을 방향으로 잡으면 좋겠습니다. 부평이 가진 역사성과 공간적 특성으로 인한 특수성이 많기때문에 로컬리티를 규정하는 것이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로컬리티를 정립하고 규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식들의 준비를 거쳐야 하는데 부평구문화재단은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부터 그것들을 준비하는 단계들로 사업을 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평구문화재단이 가진 많은 공간이 제 역할을 을 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최근 로컬리티 관련 세미나나 포럼들이 많이 열리고 있는데, 재단의 공간들을 그러한 장소들로 내어주고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부평의 시민들이 경험치들을 쌓는 시간으로 만들어주는 것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지촌의 삶을 기록할 거리의 박물관

글 김현석 인천민속학회 이사



▲ 함릉산의 일본군 격납 동굴



군홧발이 다져 놓은 부평 한 세기

그렇게 갑작스레 사라질 것으로 예측하지 못했을 거다. 간혹 55부대 같은 곳에서 한국 직원들이 해고당할 거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지만, 감원 얘기가 나온 게 하루 이틀도 아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다. 언제부턴가 부대들이 하나둘씩 이동을 하고, 머리에 수건을 두른 채 감원 반대 시위를 하던 한국인 종업원들의 모습도 눈에 띄게 줄더니 급기야 1973년 6월 30일,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20군수 지원단이 해체됐다.

이 땅을 덮고 있던 전쟁의 참상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주민들은 속수무책으로 떠나는 미군을 넋 놓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때론 이런 광경을 흐뭇한 표정으로 지켜보는 이들도 있었을거다. 미군 철수를 원하는 사람들이 아주 없진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도 미군이 없는 부평을 상상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다. 동두천이나 파주 등이 거론될 때 항상 함께 나열되던 곳이 부평이었다. 그만큼 이곳은 미군기지와 기지촌이란 이미지에 깊이 물들어 있었다.



따지고 보면 짧은 시간은 아니다. 인천항을 거쳐서 미군이 들어온 게 1945년 9월 8일이고, 같은 달에 애스컴 시티란 이름이 등장했으니 벌써 30년이 지났다. 이제 부평에 남은 건 잔여 물자를 정리하기 위한 물자 처리반과 제빵 공장, 그리고 일부 저장 시설뿐이었다. 그 후

역사문화원형에 깃든 기지와 기지촌 이야기

기지촌의 기록은 단편적이다. 캠프 마켓의 유산은 한정돼 있다. 그래서 그것만으로 부평이 경험했던 한 시대를 오롯이 보여줄 수 없다.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과 기지촌은 하나의 매개점일 뿐이다. 우린 그 걸 통해 도시의 시간 속에 담긴 역사문화원형을 발굴해야 한다. 그 후에 기록과 전시를 이어가며 활용 가능성을 따져봐야 한다.

사람들이 기지촌을 소환하면서 가장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건 이른바 클럽 문화다. 이곳을 기반으로 한국의 음악인들이 경험을 쌓고 현대음악의 유산을 남겨 놓았다. 하지만 클럽은 또한 미군의 유흥 시설로 설계된 장소다. 캠프 마켓의 게이트가 일직선으로 신촌의 클럽 거리와 연결되는 건 우연이 아니다. 게이트 안으로 이어진 도로 위에도 미군의 영내 클럽이 남아 있다. 기지촌은 철저히 미군의 욕망을 위해 기획된 곳이다. 클럽은 다른 한편으로 국가가 달러벌이를 위해 여성들을 착취했던 현장이다. 이곳 여성들의 삶은 아직도 실체가 불분명하다. 관심 밖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하나의 장소에는 이처럼 다양한 원형이 숨어 있다. 이것들을 발굴해 자원화하는 건 단편적인 기록들의 수집을 거쳐야 가능한 일이다. 아카이빙 작업이 항상 전제 조건으로 거론되는 건 그런 이유 때문이다.

유산은 또한 ‘네트워킹’ 될 때 제 모습을 드러낸다. 캠프 마켓 안에 남은 건물들은 길고 긴 터널의 끝에 놓인 잔여물일 뿐이다. 우리는 그 터널을 거슬러 올라가 또 다른 거점 공간과 유산들을 찾아내 연결시켜야 한다. 조병창 노동자들의 거주지였던 영단주택이나 아시아태평양전쟁 말기 총기와 탄환을 보관했던 산곡동 보급부대와 함봉산 일대의 동굴들도 그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유산이 반드시 건축물일 필요는 없다. 굴포천이나 장고개와 녹지와 같은 생태 유산도 훌륭한 도시의 유산이 된다.

번듯한 건물의 박물관을 찾아가 박제된 유물을 관람하던 시대는 저물고 있다. 거리 곳곳에 역사문화원형이 숨어 있고, 주민 생활과 밀접한 거점 공간은 탐방객들의 발길을 기다린다. 부평이란 도시 전체는 살아있는 거대한 박물관이 될 수 있다. 이 도시가 겪은 세월이 그러기에 충분한 콘텐츠를 갖고 있다. 캠프 마켓의 완전한 개방과 기지촌의 재생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 캠프마켓 부지 안의 미군 영내 클럽



▲ 공연 등이 열렸던 옛 백마극장



▲ 백마장 기지촌

10여 년 만에 쓰러 켜터들이 줄지어 서 있던 공터에는 아파트가 생기거나 한국군이 들어와 자리를 잡았다. 기지촌을 가득 채웠던 클럽들도 이태원 등지로 살길을 찾아 떠났다.

부평 주민들은 생각보다 변화를 빠르게 받아들였다. 1980년대 중반이 되면 벌써 기지촌이란 이름은 이제는 이곳과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됐다. 멀리 피해 다녔던 신촌이나 백마장 영단주택 안을 스스럼없이 가로질러 걸어갈 수 있게 된 것도 이즈음이다. 그로부터 다시 30여 년이 흘렀다. 이번에는 캠프 마켓이 짐을 싸는 중이다. 이들과 평택으로 이전하고 나면, 부평이란 도시는 온전히 외국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게 된다. 일본군이 공식적으로 여기에 발을 들여놓은 후

100여 년 만의 일이다. 강산이 변한 건 물론이고, 세대가 바뀌어도 서너 번은 바뀌었을 시간이다.

경술국치 이후 일본군은 부평의 넓은 평야를 군인들의 훈련장으로 썼다. 주로 용산에 주둔하던 군인들이 1910년대부터 이곳에 와서 사격하고 전술훈련을 펼치며 땅을 마음껏 써먹었다. 부평연습장을 거쳐 인천 육군조병창이 생기고, 광복 후 미군들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미군기지 주변의 철조망이 다시 정비되고 사람들이 모여들자 주변 마을들은 기지촌이란 새 이름을 얻었다. 기지촌은 미군과 함께 일찌감치 사라졌으나 사람들은 지금, 도시 속에 묻힌 부평의 기지촌을 다시 불러들이는 중이다.



▲ 철거된 삼릉 기지촌



열린 소통, 창조적 생태계를 꿈꾸는 부평구문화재단

글 전승용 인하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산학협력교수

▶ 2020년 개관 10주년을 맞이한 부평아트센터, 대극장과 소극장, 전시장 등 기본시설과 세미나실, 카페테리아 등 부대시설로 이루어져있다.



인천 10개 군·구 중 최초로 설립된 기초문화재단

부평구문화재단은 2006년 설립된 인천 최초의 기초문화재단으로 부평구의 문화예술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내년이면 창립 15주년을 맞이한다. 인천에서는 광역문화재단인 인천문화재단이 2004년 처음 출범하였고, 그 뒤를 이어 2006년에 부평구문화재단이 설립되었다. 이후 인천의 여러 기초자치단체에서 문화재단 설립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십 년이 지난 최근에 서구문화재단(2017년), 연수문화재단(2019년)이 설립되어 현재 인천에는 광역문화재단 1개와 기초문화재단 3개 총 4개의 지역문화재단이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중구와 남동구가 문화재단 설립을 준비하고 있어 향후 3년 이내에 2개의 기초문화재단이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문화재단은 2005년 「문화예술진흥법」제4조제2항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는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되면서 지역문화재단 설립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후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되면서 지역문화재단의 설립과 사업영역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1997년 7월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지역문화재단을 설립하였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강릉시가 1998년 11월 처음으로 지역문화재단을 설립하였다. 이후 지역문화재단 설립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9년 기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6개 광역자치단체가 지역문화재단을 설립했으며,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87개 자치단체가 지역문화재단을 설립했다. 기초문화재단 설립은 인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증가하고 있어 지역문화재단의 수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2017년 3월 개관하여 지역주민의 생활문화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부평생활문화센터 공감168.

▲ 2019년 부평문화사랑방에서 진행된 꿈다락토요문화학교의 수업 모습

부평의 문화 코디네이터 부평구문화재단

2008년 12월 부평구문화재단은 2006년 출범 이후 첫 웹진을 발간했다. 재단은 당시 창간호에 ‘부평의 문화 코디네이터, 부평구문화재단’이라는 주제의 글을 게재했는데 이 글에서 부평구문화재단은 구민 주민들과 소통하며 소외당하는 사람 없이 구민 누구나 평등하게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010년 부평아트센터의 개관과 함께 부평역사박물관에서 부평아트센터로 재단이 이전하면서 그 기능과 역할이 보다 확대되었다. 2006년 부평구문화재단 설립 초기엔 부평역사박물관, 부평기적의도서관 2개의 문화시설을 수탁 운영했다. 이후 2009년 부평아트센터 수탁 운영을 시작으로 2011년 부평문화사랑방, 부평구청소년수련관, 부평구립도서관 등을 수탁 운영하게 되면서 지금의 조직과 재단 규모에 이르게 되었다. 이 중 부평역사박물관은 2013년부터 부평문화원에서 수탁 운영하고 있다. 이렇듯 부평구문화재단의 기능과 역할은 설립 초기보다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 부평구의 문화예술 진흥을 선도하는 기관으로서 지역 내 위상이 높아졌다. 특히 부평아트센터의 개관은 부평구민들이 지역에 대한 자긍심과 부평문화재단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는 계기가 된 것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2012년 부평구문화재단은 처음으로 부평구민들의 문화 향유 실태를 조사하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문화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2012 인천 부평구 문화지표 개발 및 조사연구」를 추진했다. 이는 부평구의 인문·사회환경, 문화환경, 구민들의 문화 활동 현황과 변화를 계량화하고, 문화 수요조사를 통해 부평구민들의 문화시설 이용도, 문화예술행사 참여도와 만족도, 축제와 동호회 활동에 대한 참여와 의견 등을 비롯한 향후 문화 활동 경향을 조사하여 분석한 첫 결과물이라는 것에 의의가 있다. 당시 연구 결과에서 도출된 ‘부평구민들의 문화 소외 현상을 주목해야 한다’, ‘부평의 문화시설과 기구에 대한 운영평가를 기초로 각 시설과 기구를 효과적으로 연계·운영할 수 있는 전략 수립이 시급하다.’라는 시사점은 부평문화재단의 해결과제가 되었다.

2014년 「문화기본법」, 「지역문화진흥법」,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등의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문화정책의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이에 따라 지역문화재단의 기능과 역할도 변화를 맞이한다. 특히 「지역문화진흥법」은 지역문화재단의 설립 근거로 지역문화진흥의 기본원칙을 명시함에 따라 ‘생활문화 활성화’가 새로운 과제가 되었다. 또한 민간 부분의 주체적 참여와 협력을 활성화하는 방안

도 주요 이슈로 등장했다.

부평구문화재단도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고자 2017년 ‘부평생활문화센터 공감168’을 개관하고 부평구의 생활문화 진흥과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이 시기에 부평구문화재단은 조직을 3본부로 개편하고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앞서 2016년 부평구는 문화특화 지역조성(문화도시)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음악도시 부평’을 주제로 재단이 중심이 되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 부평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도시 사업에 예비문화도시로 선정되었다. 현재에는 부평구문화재단 내에 문화도시추진단이 설립되어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관련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17년 수립한 중장기 발전계획은 문화재단 설립 이후 처음으로 수립한 계획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의 계획을 담고 있다. 문화 감수성, 역동성, 공감성 3대 핵심가치를 중심으로 문화로 활력있는 구민, 예술로 발견하는 지역, 소통으로 융합하는 재단 3대 전략 9개 전략과제 29개 세부과제가 제시되었다. 십 년이 넘는 부평구문화재단의 그동안 행보를 살펴보면 지역 문화예술 진흥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사업과 지원사업보다는 부평구의 문화시설 운영 관리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 결과 부평구문화재단은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관과 민간을 매개하는 중간 지원조직으로서 기능과 역할보다는 문화시설 운영 관리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부평구민들은 문화재단 사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주체가 아닌 공연·전시 등의 관람객처럼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소비자 입장으로 머무르게 되었다.

따라서 「부평구문화재단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는 부평구문화재단이 그동안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한계를 인지하고 이를 극복하고자 노력하려는 첫 시도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공감성’을 3대 핵심가치 중 하나로 정립하고 이에 따라 ‘주민이 주도하여 가꾸는 지역문화’,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문화재단’, ‘열린 마음으로 듣는 문화재단’ 3대 전략과제와 ‘부평문화시민활동 매개자 양성’, ‘부평문화시민활동 매개자 양성’, ‘예술가와 부평구민이 함께 하는 창안 프로젝트’, ‘지역문화 협력 거버넌스 구축’, ‘정부 정책사업 등 공모사업 도전 활성화’, ‘공간 이용자 위원회 운영’, ‘내부 공감프로그램 활성화’ 7개 세부과제를 수립했기 때문이다.



▲ 부평기적의도서관

부평구민의 문화적 권리를 실현하는 부평구문화재단을 꿈꾸며

「문화기본 법」, 「지역문화진흥법」,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등은 모든 국민이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과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 즉 문화권에 기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문화정책은 하향식(Top-down) ‘문화의 민주화’ 정책에서 상향식(Bottom-up)인 ‘문화 민주주의’ 정책으로 그 패러다임이 변화하였다. 그리고 지역문화예술 진흥과 활성화를 위한 지원은 문화예술단체(예술가) 중심에서 생활문화 동호회, 일반 시민 등 지역 주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문화예술 혜택의 관점에서 문화적 권리(문화권)를 중심으로 한 시민의 문화권리 확보 차원으로 문화정책의 방향이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지역문화재단은 지역 문화시설 운영 관리하는 것을 넘어 지역 주민들의 문화적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환경과 기반을 마련하는 등 보다 지역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2020년 2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제2차 지역문화 진흥계획(2020~2024)’에는 ‘포용과 혁신의 지역문화’라는 비전에 따라, 시민의 참여로 문화자치 생태계 구축, 포용과 소통으로 생활기반 문화 환경 조성, 지역의 개성 있는 문화 발굴·활용, 문화적 가치로 지역의 혁신과 발전이라는 4개 전략과 15개 핵심과제가 제시되었다. ‘제1차 지역문화 진흥 기본계획(2015-2019)’이 지역문화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전문인력 양성, 생활문화 진흥 등 전반적인 지역문화 역량을 강화하고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 제2차 기본 계획에서는 ‘시민의 참여’가 핵심이다. 특히 지자체가 직접 다양한 주체들 간의 소통과 협력을 지원하는 지역문화협력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을 개정하고, 지자체 대상 공모사업을 선정할 때 ‘문화 분야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시 가점을 부과하는 방법 등 지자체가 지역 주민의 높은 문화서비스 수요를 반영한 예산을 편성·확대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하겠다는 것이 주목되는 부분이다.

이러한 문화정책의 변화로 지역문화재단은 문화예술정책의 공급자가 아니라 지역문화 거버넌스의 한 주체로서 지역문화 정책 주체들(공공·민간)의 협력 플랫폼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최근 부평구문화재단은 문화도시 사업을 준비하면서 그 어느 때 보다 지역 주민들과 많이 소통했다. 그리고 최근 부평문화포럼을 라운드테이블 방식으로 운영하여 지역 주민들과 지역 문화예술단체들을 중심으로 지역의 문화예술 활성화와 진흥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등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2021년 창립 15주년을 맞이한 부평구문화재단은 지역문화재단이 생소하던 시기에 출범해 그동안 부평구의 문화예술 활성화와 진흥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최근 문화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그리고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코로나19를 통해 그 어느 때 보다 지역문화재단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특히 코로나19로 부평의 많은 문화시설을 운영하며 시설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해 온 부평구문화재단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상황이다. 부평구문화재단은 이러한 시대 변화에 따라 지역의 다양한 문화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수요를 반영한 공공문화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앞으로 부평구문화재단은 지역 주민들의 문화예술 활동의 허브로서 지역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문화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정책의 추진을 통해 시민들의 문화적 권리 실현할 수 있도록 보다 그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창립 15주년을 맞이한 부평구문화재단은 ‘문화적 삶과 창조적 생태계를 함께 가꾸는 열린 소통광장’이라는 비전처럼 지역 주민들을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과 발전을 함께 도모할 파트너로 인식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더욱 귀담아들을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부평 청년 다 다

ZOOM IN 01

<힛스윙밴드> 평론가 리뷰
- 스윙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ZOOM IN 02

우리의 일상이 잠시 주춤해도,
부평구 청소년들의 시간은 계속 흐른다

ZOOM IN 03

부평구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문화를 위해

ZOOM IN 04

책 읽는 부평, 그 속에서 찾아보는
가족의 의미



<헛스윙밴드> 평론가 리뷰

스윙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글 이재훈 뉴시스 문화부 기자



헛스윙밴드

부평에서 부산까지! 시대와 역사의 현장을 음악으로 돌파해 나가는 파란만장한 재즈밴드의 탄생!

재즈는 자유롭다. 그 어떤 개성도 품어낼 수 있다. 1970년대 온갖 사연으로 부평을 살아가던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재즈밴드로 탄생한다. 다양한 구성원들의 하모니가 시대의 역사와 만나며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낸다. 어느 시대, 그 무엇과 만나도 즉흥으로 변화하며 새롭게 창조되는 재즈. 그 어떤 역사의 현장도 음악으로 모두 받아내는 기상천외한 밴드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뮤지컬 <헛스윙밴드>를 보다 보면, 재즈가 제대로 임자를 만났구나 싶다. 우리나라에선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재즈는 어렵다고 여긴다. 정말 어려운 일은 재즈를 듣는 것이 아니라, 재즈를 느끼는 일이다. <헛스윙밴드>는 재즈의 본질 중 하나인 'Free(자유)'를 내세우며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 영화 <라라랜드>(2016)에서 “난 프리 재즈 싫어해”라며 세바스찬(라이언 고슬링)을 클럽에서 해고하는 보스(J.K.시몬스)가 들으면 성을 낼 일이지만, 그것이 재즈의 속성이다. 클래식 음악을 공부하며 모범 생활을 하던 <헛스윙밴드>의 주인공 ‘방규석’이 재즈에 마음을 빼앗긴 것도 그 ‘자유로움’ 때문이다. 또 방규석이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입양된 뒤 세계적인 재즈 보컬이 된 매기 킴과 그녀의 음악에 매료된 것도 무엇에 얽매이지 않은 정신을 느껴서다. 매기 킴이 부산에서 함께 연주할 밴드 멤버들을 모집한다는 소식을 듣고 팀원들을 나서서 모집하는 등 수동적이던 방규석은 적극적으로 변모된다. 여기서 대본을 쓴 오세혁 작가의 메시지가 읽힌다. 오 작가는 재즈가 세계 곳곳에서 온 이민자들이 경조사에서 같이 축하하거나 위로할 때 연주한 음악이라는 걸 중요하게 여겼다. “각자 다른 악기를 연주하며, 자유롭게 노래에 들어왔다가 빠지고, 다 함께 행진하기도 하는 음악. 그런 부분이 영감을 많이 줬다”는

것이다. <헛스윙밴드> 역시 마찬가지다. 클래식 음악을 공부한 규석이 중심이 돼 민중가요를 부르는 운동권 대학생 장희, 명창을 꿈꾸는 소리, 미군 부대 클럽에서 일하며 힙합과 솔(soul) 음악이 몸에 밴 마이클이 우여곡절 끝에 한 팀이 된다. 이들은 투어버스가 아닌 트럭을 타고 부평을 출발해 부산으로 향한다. 1970년대 부평이 배경인 이유는 부평구문화재단이 만든 작품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평을 단순히 도식적인 소재로 삼지 않은 점을 높게 평가해야 한다. 지역의 역사적인 특징과 배경을 뮤지컬 소재로 자연스럽게 녹여냈다. 부평은 한국 대중음악의 성지 중 한 곳으로 통한다. 1950~60년대 부평에는 주한미군 군수지원사령부(애스컴)가 있었다. 이를 중심으로 20~30개의 클럽이 운영됐다. 록, 재즈 등 밴드 음악이 자연스레 발전했다. 더구나 <헛스윙밴드>는 지역성을 넘어선다. 부평에서 결성된 밴드가 부산까지 나아가는 여정을 통해 군부독재에 맞선 부마항쟁, 노동운동 등 격동의 시대도 자연스레 다룬다. 특수성과 보편성을 동시에 건드린다. 느닷없이 찾아온 코로나19 시대에 주목받는 로컬(지역)과도 연계해 생각할 거리를 안긴다. 전염병이 세계로 확산하면서 대응이 유연한 작은 도시, 즉 지역의 사회·경제 체계가 중요해지고 있다. 문화 활동

과 관련 지역문화재단이 주목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지역의 경계를 넘나들지 않아도 해당 지역에서 문화소비 활동이 가능해야 한다. 오 작가와 재즈를 뮤지컬 넘버로 유연하게 적용한 이진욱 작곡가, 우상욱 연출가 등 공연계의 중심인 대학로에서도 내로라하는 창작진이 뭉친 <헛스윙밴드>는 그걸 충족시킨다. 그렇다고 지역에만 천착하지 않는다. 1979년 부산 및 마산 지역을 중심으로 벌어진 민주항쟁을 다룬 것에서 보듯, 전국구 뮤지컬이다. 규석 일행이 부산을 향하면서 흘러나오는 서수남·하청일 원곡의 ‘팔도 유람’만 들어도, <헛스윙밴드>는 지역에만 머무를 생각이 없다. 지난해 초연에 이어 올해가 재연인데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과 물리적으로 멀어진 때, 심리적으로 가깝게 연대하는 묘를 안긴다. 무엇보다 우리의 아픈 근현대사를 마주하는 방식이 주목할 만하다.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겪은 아픔과 상처를 재즈의 그루브와 스윙 댄스의 리듬으로 승화한다. ‘재즈는 울지 않는다’는 부제는 그래서 옳다. 아픔과 상처를 다루는 방식이 무겁지 않다는 것이지, 진중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그건 일종의 ‘애이불비(哀而不悲)’다. 슬프지만 겉으로는 슬픔을 드러내지 않는 것. <헛스윙밴드> 속 넘버 ‘재즈의 세계2’의 노랫말이기도 한 “독재자는 물러가라. 훌라훌라”는 실제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울려 퍼졌던 애이불비적 외침이었다. ‘애국가’, ‘아침이슬’, ‘잘 살아보세’, ‘농민가’, ‘새마을 노래’ 등 재즈 곡이 아닌 곡들이 재즈로 재해석되는 순간도 그렇다. 배우들도 탄탄하다. 대형 뮤지컬에서 입지를 다진 신현묵과 대학로에서 주목 받는 배우인 송광일이 방규석 역에 더블 캐스팅 돼 활약했다. 신현묵은 페이스스가 질고, 송광일은 애잔하다. 광장희 역할을 나눠 맡은 홍나현과 최하은을 비롯 전체적으로 배우들의 연기력과 가창력이 탄탄하다. 화려한 세트는 아니지만, 트럭으로 변신하는 메인 무대 등 아이디어도 좋다. 이처럼 <헛스윙밴드>는 내적 구성의 구심력과 외연 확장의 원심력이 단단히 맞물렸다. 계속 헛스윙만 날리면 어쩌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망이조차 휘두르지 못하는 것보다, 공을 맞이지 못하더라도 자신의 리듬으로 휘두르는 것이 젊음이다. 대중 뭉개지 않고, 자신만의 리듬으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괜찮다는 위로를 주는 뮤지컬이 <헛스윙밴드>다. 세상이 상처가 슬픔을 안겨줘도 재즈와 우리는 울지 않는다. 우리 삶의 균열들 속에 음악이 흐른다. 그래서 살아갈 만하다. 그것이 스윙 정신이기도 하다. 재즈 피아니스트 거장 듀크 엘링턴은 이런 제목의 곡을 썼다. ‘스윙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It Don't Mean a Thing-If It Ain't Got That Swing)





우리의 일상이 잠시 주춤해도, 부평구 청소년들의 시간은 계속 흐른다.

코로나-19로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일상의 모든 것이 잠시 더디게 흘러가지만, 꿈과 열정이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 부평구청소년수련관의 시간은 멈추지 않고 계속 흐른다.



첫 번째 이야기, 2020 부평청소년페스티벌

2018년부터 부평구청소년수련관 주관으로 진행되고 있는 <2020 부평청소년페스티벌>은 청소년 가요제와 청소년 댄스경연대회로 진행되었다. 서울과 인천을 비롯해 대구, 대전, 수원 등 전국 각지에서 약 80여개 팀이 참가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본선 영상을 위해 각 거주지역의 레코딩 스튜디오와 연계하여 가요제 참가자 영상을 제작하도록 지원하고, 전문 영상제작업체가 댄스경연대회 참가자를 직접 찾아가 공연 영상을 촬영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가요제는 국민코러스 김현아, 래퍼 타이미, 음반 프로듀서 뉴올, 댄스대회는 나나컴퍼니의 대표 이원신과 부대표 양옥, 안무가 김인수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했으며, 청소년가요제 14팀과 댄스경연대회 12팀이 본선에 진출했다. <2020 부평청소년페스티벌>의 본선은 지난 10월 31일에 청소년 가요제와 댄스경연대회 총 2부로 나눠 진행되었다. 먼저 진행된 청소년가요제에서는 누가 대상이 될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모두 우수한 실력을 보여줬다. 가창력이 출중한 것은 물론이고 떨지도 않는 모습이 놀라웠다. 뒤이어 진행된 힙합, 재즈에서부터 코레오그래피 장르까지 다양한 댄스팀의 모습을 만나볼 수 있었다. 보통 경연대회는 마치는 즉시 점수가 집계 되고 순위표와 시상식이 이루어지지만 이번 2020 부평청소년페스티벌은 모든 과정이 비대면으로 진행되어 시상식은 11월 7일에 따로 진행되었다. 청소년가요제는 뉴즈의 덤덤을 부른 안소는 청소년이 대상의 영예를 안았고, 최우수상은 7시 57분팀, 우수상은 청천극장팀, 장려상은 김민지 청소년과 심채현 청소년이 수상했다. 댄스경연대회는 9명으로 구성된 혼성팀 LDB가 대상으로 선정되었고, 최우수상은 루키팀, 우

수상은 J&L크루 팀, 장려상은 TIMIRM팀과 리얼모션 팀이 수상했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여성가족부장관상과 상금 100만원이 수여되었고, 최우수상은 인천광역시시장상과 상금 70만원, 우수상은 인천광역시교육청장상과 상금 50만원, 장려상은 각각 부평구청장상과 부평구 의장상과 상금 30만원을 받았다. 유튜브로 올라간 청소년가요제와 댄스경연대회의 영상들을 토대로 심사위원 평가 50%, 청소년 심사단 20%, 업로드 된 영상의 좋아요 클릭수 20%, 조회수 10%로 집계되어 수상자를 선정했다. 집계 점수의 소수점 아래 두자리까지 계산을 했는데도 참가자들간의 점수격차가 거의 없을 정도로 박빙의 순위 경쟁이었다고 한다. 2020 부평청소년페스티벌 'On-Air'는 참가자의 실력과 영상의 완성도가 높았던 만큼 무대에서의 공연을 눈앞에서 직접 볼 수 없다는 아쉬움이 크게 느껴졌다. 하지만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청소년의 꿈과 열정을 펼칠 수 있는 장으로서 페스티벌은 계속 이어질 것이며, 2021년에는 관객이 함께하는 무대에서 만나기를 기대해본다.

2020 부평청소년페스티벌
가요제 영상



2020 부평청소년페스티벌
댄스경연대회 영상





상제여서 실시간 방송이 종료됨과 동시에 유튜브 채널에 상영된 작품이 업로드 되어 시청자들이 직접 투표에 참여해 최종순위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대상은 흥하는 청소년이 제출한 <로망>, 최우수상은 서울방송고등학교 '포텐'의 <까메오>, 우수상은 서울방송고등학교 '인비드'의 <떠나야만해>, 장려상은 경기예술고등학교에서 제출한 <쌈쌈>과 인천동명초등학교 영화동아리 'DongFlix'의 <7시 50분>이 수상했고, 대

상에게는 인천광역시교육감상과 촬영장비, 최우수상에게는 부평구청장상과 촬영장비, 우수상에게는 부평구의회위원장상과 촬영장비, 장려상에게는 부평구청소년수련관장상과 문화상품권이 수여되었다. 청소년심사단 청소년심사단 평가 70%, 업로드 된 영상의 좋아요 클릭수 20%, 조회수 10%로 집계되어 수상자를 선정했다. 청소년제작자가 만들고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해 최종 수상작이 선발되어서인지 더 뜻깊은 영상제였다.

두 번째 이야기, 제5회 부평청소년영상제

부평구에서 유일하게 영상미디어 전문시설을 갖추고 있는 부평구청 소년수련관에서는 벌써 5회째 청소년영상제를 진행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영상 제작활동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울, 인천뿐만 아니라 제주에서도 작품을 보냈다고 한다. 총 15개의 작품이 접수되었고 부평구청소년수련관 청소년영상단 라이트 단원들과 영상미디어지도자 선생님들이 독창성과 완성도, 주제의 적절성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총 8개의 작품이 상영작으로 선정되었다. 제5회 부평청소년영상제는 지난 11월 14일(토) 부평구청소년수련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 되었고, '청소년영상단 라이트'의 김예람 청소년과 이산 청소년이 진행을 맡았다. 2개의 영상이 한 개의 파트로 상영이 진행되었고 상영이 종료된 후, 출품작의 관계자와 실시간 전화 인터뷰를 진행했다. 작품을 보며 궁금한 점을 남기기도 하고, 방송중 진행되는 퀴즈로 실시간 채팅방의 열기도 매우 뜨거웠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영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제5회
부평청소년영상제



부평구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문화를 위해

인천에는 8개의 자치구가 있으나, 유일하게 부평구만이 청소년성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센터는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가치관 확립을 위해 힘쓰고 있다. 모든 청소년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형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이 민주적이고 주체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모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성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만남방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

부평구청소년성문화센터는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 가치관 확립을 위해 체험관성교육, 찾아가는 성교육, 청소년 동아리, 성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등 다양한 교육과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성교육 체험관에서는 연령과 발달단계에 맞춰 만남, 거울, 자궁, 탄생, 사춘기, 사회속의 성문화, 우주속의 나 등 다양한 이름을 가진 교육 공간에서 대상별 성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청소년들의 연령대와 상황에 맞춰 교육이 구성되어 있어, 같은 공간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맞춤형 성교육이 진행된다.



[거울방]

[자궁방]



[사춘기방]

[사회속의 성문화방]



[우주속의 나]

[탄생방]

체험관의 문을 열면 가장 먼저 보이는 만남방은 교육을 시작하기 전 성에 대한 다양한 이미지를 보고 성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이다. 거울방은 외모지상 주의에서 벗어나 몸의 다양한 이미지를 알고, 존중의 태도를 배울 수 있도록 오목거울, 볼록거울 등으로 자신의 몸을 살펴볼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되어있다. 포근함과 편안함, 신비로움 등 생명감을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는 자궁방은 폭신폭신한 쿠션들 덕분에 체험관에 찾아온 학생들이 가장 편안해하는 공간이다. 바로 옆에 연결되어있는 사춘기방에서는 서로의 성장경험을 이야기하며 사춘기의 심리적 변화를 이해하는 과정이 진행된다. 임신 시기별 태아 모형을 통해 생명탄생의 과정을 경험해볼 수 있는 탄

생방에서는 실제 산모와 비슷한 인형을 통해 태동까지 느껴 볼 수 있다. 신생아 인형과 임산부 체험 교구를 통해 생명탄생의 신비로움과 생명의 소중함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마지막 교육이 이루어지는 방이라 볼 수 있는 사회속 성문화방에서는 온·오프라인 속 성문화에 대한 건강한 비판의식과 성범죄 예방교육 및 대응방법에 대해 알 수 있다.

교육은 대상별로 40분에서 120분까지 연령에 맞게 진행되며, 참가비는 무료로 운영된다. 체험관 교육은 8~15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코로나19등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는 5명으로 축소하여 운영되고 있다. 사춘기를 겪고 있는 아이들에게 올바른 성교육이 필요하다면 부평구청소년성문화센터로 신청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



▲ 지난 7월 16일 '2020년 진행된 성교육 자원활동가 양성과정' 수료식이 진행됐다.



▲ 부평구청소년성문화센터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과 성의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주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책 읽는 부평, 그 속에서 찾아보는 가족의 의미

2020 올해의 대표도서 「페인트」

올해 9회를 맞이한 '책 읽는 부평'은 2012년 부평구와 부평구문화재단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부평구립도서관과 책 읽는 부평 추진협의회가 주관하는 독서행사다. 2012년 「거북이는 왜 달리기 경주를 했을까?」를 시작으로 2013년 「사료를 드립니다」, 2014년 「그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 2015년 「블랙아웃」, 2016년 「나는 인도 김씨 김수로」, 2017년 「푸른 늑대의 파수꾼」, 2018년 「평화, 당연하지 않은 이야기」, 2019년 「푸른사자와니니」까지 인문학부터 일본군 강제 위안부, 평화에 대한 소재까지 다양한 주제들이 부평의 대표도서로 선정되었다. 대표도서를 통한 독서 릴레이와 독서토론, 북콘서트, 책 읽는 아파트 등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병행해 추진하며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 올해는 지난 2월 실시한 주민 투표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받은 「페인트」(이희영 지음, 2019, 창비)가 대표도서로 선정되었다.



지난 7월 8일에 진행된 책 읽는 부평의 북콘서트는 조금 특별했다. 유례없는 바이러스의 습격으로 대면 행사가 어려워진 탓에 모두가 집에서 즐길 수 있는 온라인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처음 진행되는 온라인 북콘서트에 실시간 채팅방은 생방송 시작 전부터 긴장감과 설렘이 가득 차 열기가 매우 뜨거웠다. 서울밴드의 현상필 대표

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북콘서트는 약 1시간 30분 동안 「페인트」의 이희영 작가, 문학평론가 허희와 함께하는 북토크, 퀴즈이벤트, 질의응답, 서울밴드의 축하공연 등 알찬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북콘서트가 진행되고 있는 부평구립도서관의 재개관을 기념해 도서관 사서들이 직접 제작한 투어 영상도 함께 시청할 수 있었다. 서울밴드의 오프닝 곡 <LOVE>가 끝난 후 본격적인 북토크가 진행되었는데, 책을 읽으며 들었던 생각과 질문, 소감 등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이희영 작가에게 책 읽는 부평의 대표도서로 선정된 소감을 묻자, 「페인트」가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는다는 것 자체가 정말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연이어 진행된 북토크에서는 작가님의 부모면접이라는 소재로 글을 쓰게된 계기와 등장하는 캐릭터들 중 가장 애정이 가는 캐릭터는 누구인지 등 다양한 소재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해당 북콘서트 영상은 부평구립도서관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보기가 가능하다. 올 한 해 책 읽는 부평은 온라인 북콘서트 진행후에도 청소년과 성인 그룹



을 나누어 작가와의 만남, 주제토론과 통통토론회, 독서릴레이 등 지역 곳곳에서 주민들과 책으로 소통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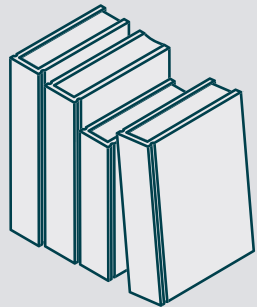
「페인트」는 낮은 출산율로 고민하는 가까운 미래 가상의 한국을 배경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정부는 아이 양육을 바라지 않는 부모를 대신하여 아이를 보육하는 정책을 도입하고, 국가시설(NC)을 건립하여 아동을 보육하며 13세에 이르러 부모를 선택할 수 있는 부모면접(Parent's Interview, 페인트)의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이희영 작가는 단편소설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로 2013년 제1회 김승옥문학상 신인상 대상을 수상하며 본격적인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2018년 「너는 누구니」로 제1회 브릿G 로맨스릴러 공모전 대상을 수상했으며, 같은 해 「페인트」로 제12회 창비청소년문학상을 수상했다. 지은 책으로 장편소설 「썸썸썸 베케이션」, 「너는 누구니」가 있다. 그 밖에 제10회 5·18문학상 소설 부문, 제3회 등대문학상 최우수상, KB 창작동화제 우수상 등을 수상하며 문학적 역량을 인정받았다.



부평구립도서관 사서와 함께 하는

북 큐레이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집안에서 즐길 수 있는 소소한 취미를 찾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다. 집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취미가 책 읽기가 아닐까 싶다. 어떤 취미를 찾을까 고

민중인 여러분에게 부평구립도서관 사서들이 2020년 책 읽는 부평의 대표도서 「페인트」와 함께 읽기 좋은 책을 소개한다.



「리얼마래」

황지영, 문학과지성사,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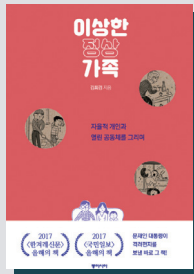
제14회 마해송문학상 수상작으로 요즘 사회적 문제로 많이 대두되는 SNS 속 문제들을 예리하게 짚어냈다는 평을 받은 책이다. 부모로 인해 주인공 마래가 겪게되는 혼란과 상처를 섬세하게 다룬 책으로 아이들 스스로 관계를 회복하고 성숙해지는 과정이 잘 담겨있다.



「발버둥치다」

박하령, 자음과모음, 2018

장애인 부모와 비장애인 자녀의 가족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책이다. 농인부모의 자녀 유나, 다동이 가족의 장녀 승미, 교수 부모의 모범생 딸 주은이 10대 세 친구의 이야기로 전개되는데 가족간의 건강한 거리두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이상한 정상가족」

김희경, 동아시아, 2017

입양과 가족의 의미와 더불어 가족주의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사회비평서이다. 크게 4가지의 주제로 나누어져 있는 책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세상의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가족입니다」

김해원, 바람의 아이들, 2010

4명의 작가가 연결되면서도 독립된 이야기를 옴니버스 형식으로 담아낸 책이다. 이 책은 가족 안에서 위태롭던 4명의 인물이 휴대폰 광고를 함께 촬영하면서 저마다의 방식으로 가족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가족의 두 얼굴」

최광현, 부키, 2012

크게 4개의 장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저자가 오랜기간 가족상담을 하며 경험한 내용을 토대로 가족에게 받은 상처와 트라우마, 이를 치유하기 위한 방법을 소개한다.

이렇게 소개된 5권의 책은 부평구립도서관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을 통해서도 만나볼 수 있다.

책 읽어주는 도서관 영상



모두의 일상이 한곳에, 올-리브(All Live) 2020 언택트 생활문화 〈따로 또 같이〉



올해 부평생활문화축제는 부평생활문화센터 공감168 앞 잔디광장에서 ‘텐트에서 즐기는 생활문화축제’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언택트 축제로 전환하여 진행되었다. ‘언택트 생활문화 <따로 또 같이>’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된 행사는 지난 10월을 부평생활문화주간으로 지정하여 다양한 장르의 생활문화동호인들의 모습을 촬영했다. 동호회별로 촬영시간과 대기공간을 구분하여 한 공간에 함께 모이는 인원을 최소화하여 진행하였으며, 총 23개의 동호회가 함께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도 틈틈이 개인 연습을 하며 자신의 실력을 갈고닦은 동호회 회원들의 모습이 알차게 담겼다. 모든 촬영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되었고, 해당 영상은 부평구문화재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또한 지난 10월 16일에는 다원생중계로 진행된 <2020 전국생활문화축제>에도 참여하여 같은 기간에 열리는 순천, 군포, 울산 등 여러 지역의 생활문화축제 현장에 함께했다. 시니어로 구성된 포크댄스 동호회 ‘부평홀릭포크댄스’팀이 대표로 인터뷰도 진행하고, 특별공연도 선보이며 전국의 생활문화 동호인들과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 <2020 전국생활문화축제> 다원생중계 현장에서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 ‘부평홀릭포크댄스’. ‘부평홀릭포크댄스’는 2017년 부평생활문화센터 <생활문화학교>의 지원사업으로 창출된 동호회로 포크댄스에 폭 빠져있는 시니어로 구성된 동호회다. 경쾌한 음악과 동작으로 신체적 활력을 찾고 공연으로 재능기부를 하며 주민 간의 화합과 친교의 장을 만들고 있다.

2020 언택트 생활문화
<따로 또 같이> 영상보러가기



- 참여동호회 -

인천통기타모임(벃과 기타), 한울, 어울림통기타, 우케랑, 라니카이우쿨렐레, 소리샘하모니카양상블, 열우물하모니카, 알럽하모니카양상블, 부평홀릭포크댄스, 희망크마하프, 3GO장구동호회, 한마음문화예술단, 타악퍼포먼스그룹 고집불통락울림, 블루샌드, 알로하푸메하나, 기쁜판페, 파란소리밴드, 홀라호누, 화요일무조건11시드로잉, 롤라장, 붓뜰, 꽃피는 업사이클링 양말목 이야기

지역예술가와 함께하는 2020 부평구 공공미술 프로젝트 〈부평 미술로〉

지난 12월 2일부터 코로나-19로 지친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로 활력을 불어넣고 작품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예술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2020 부평구 공공미술 프로젝트 <부평 미술로>’가 부평구 곳곳에서 진행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시각예술을 통해 지역민들과 지역예술가들이 상호작용이 가

능하도록 일상 속 예술공간을 조성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부평 곳곳에서 유목형식으로 전개되며 ‘우리 동네 미술’과 ‘Team City Project’ 두 개의 프로젝트팀이 지역사회가 작품의 일부가 되는 공간을 기본 컨셉으로 잡았다.



▲ 원전산공원에 설치된 이동형 전시장 모습, 체험프로그램 참여하는 어린이의 모습.

‘우리 동네 미술’팀은 부평구를 중심으로 창작활동을 하는 예술가로 구성되었다. 원적산공원과 부평공원, 북구도서관, 부평아트센터 등 지역주민들이 편안하게 찾을 수 있는 휴식공간에 이동형 전시장을 설치하고 체험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며 찾아가는 전시로 진행했다. 12월 2일 원적산공원을 시작으로 12월 16일에는 부평공원, 12월 30일에는 북구도서관에서 진행되었으며 2021

년 1월 29일까지 부평아트센터 야외광장에서는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한 주민들의 작품을 전시하여 지역민들이 직접 우리 동네 미술가가 되어보는 시간도 선물했다. 코로나-19로 실내 출입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시장은 직접 출입하지 않고도 외부에서 볼 수 있는 투명 컨테이너 형태로 마련되었으며, 체험 프로그램은 사전 예약을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 부평공원에 설치된 ‘Bupyeong projection mapping’의 모습

‘Team City Project’ 팀은 ‘Bupyeong projection mapping’과 ‘집정시장 展’ 2개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Bupyeong projection mapping’은 현재 우리가 당면한 위기의 시대를 관조하는 지역예술가 6명의 시선과 발언을 담아내는 영상을 프로젝터를 통해 투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야간에만 운영되는 제한적인 전시로 12월 2일 부평공원을 시작으로 백운역, 부평장애인복지관, 부평아트센터에서 진행되었다. ‘집정시장 展’은 지역예술가 8명이 집정시장 상인들과 함께 보조간판을 제작·설치하여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심미성을 도모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2020 부평구 공공미술 프로젝트 <부평 미술로>의 다양한 예술적 접근을 통해 단순 관람이 아닌 소통과 교감의 가치를 실현하고 우리가 직면한 불안과 위협에 맞서 공공예술의 효과를 발견하는 기회가 되었길 바란다.

B 부평생활문화센터 공감168

생활문화활동을 하고자 하는 지역주민
누구나 함께 소통하며 공감할 수 있는 공간

| 주소 : 인천 부평구 아트센터로168
| 문의 : 032-500-2064

D 청천도서관

세계 곳곳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문화 특화 도서관

|주소 : 인천 부평구 원길로 23
|운영시간 : 화~금 09:00~22:00, 토~일 09:00~18:00
(월요일, 법정공휴일 휴무)
|문의 : 032-330-9171~3

F 갈산도서관

여가와 취미를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도서관

| 주소 : 인천 부평구 주부토로 254
| 운영시간 : 화~일 09:00~18:00
(월요일, 법정공휴일 휴무)
| 문의 : 032-5362-0261~2

H 부평구청소년수련관

청소년들이 많이 웃고 성취감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수련관

|주소 : 인천 부평구 체육관로 76
|운영시간 : 화~금 09:00~22:00, 토~일 09:00~18:00
(월요일, 법정공휴일 휴무)
|문의 : 032-500-5500~1

J 부평기적의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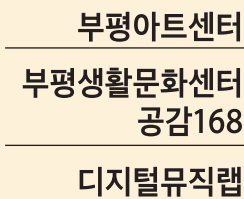
2006년 부평지역에서 처음으로 문을 연
가족 도서관

| 주소 : 인천 부평구 길주남로 166
| 운영시간 : 화,수,금,토,일 09:00~18:00,
 목 09:00~20:00 (월요일, 법정공휴일 휴무)
| 문의 : 032-505-0612

L 부개어린이도서관

어린이와 부모가 함께 성장하는
메이커스페이스 프로그램 특화 도서관

|주소: 인천 부평구 동수로 166
|운영시간: 화~일 09:00~18:00
(월요일, 법정공휴일 휴무)
|문의: 032-505-1131~2



부평구문화재단 후원회 소개



튼튼한 후원, 부평구문화재단 후원회

부평구문화재단 후원회는 부평구문화재단의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통해 부평구민과 지역예술단체의 아름다운 문화 동반자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신청방법

- ① 방문신청 인천광역시 부평구 아트센터로 166, 부평구문화재단 기획조정팀
- ② 신청문의 032-500-2016

후원회원 등급 및 예우

기업 / 개인	해누리 (5천만 원)	- 기업 브랜드 타이틀 제공 (기획공연에 한해 연간 2회) - 기획공연 입장권 연간 40장 - 공연 및 축제 프로그램 기업명 표기 - 후원사 홍보 부스 설치 (기획공연시 연간 2회) - 세미나실, 커뮤니티 홀 무상 대관 (연간 4회) - 기획공연 오픈 전 안내, 할인 및 우선 예매적용 (50%)	평생회원
	달누리 (2천만 원)	- 기업 브랜드 타이틀 제공 (기획공연에 한해 연간 1회) - 기획공연 입장권 연간 30장 - 공연 및 축제 프로그램 기업명 표기 - 후원사 홍보 부스 설치 (기획공연시 연간 1회) - 세미나실, 커뮤니티 홀 무상 대관 (연간 3회) - 기획공연 오픈 전 안내, 할인 및 우선 예매적용 (40%)	
	꽃누리 (1천만 원)	- 기획공연 입장권 연간 20장 - 공연 및 축제 프로그램 기업명 표기 - 세미나실, 커뮤니티 홀 무상 대관 (연간 2회) - 기획공연 오픈 전 안내, 할인 및 우선 예매적용 (30%)	
	별누리 (5백만 원)	- 기획공연 입장권 연간 10장 - 기획공연 오픈 전 안내, 할인 및 우선 예매적용 (20%)	
	구름 (3백만 원)	- 기획공연 입장권 연간 10장 - 기획공연 오픈 전 안내, 할인 및 우선 예매적용 (20%)	7년
개인	외 (1백만 원)	- 기획공연 입장권 연간 6장 - 기획공연 오픈 전 안내, 할인 및 우선 예매적용 (20%)	5년
	가람 (5십만 원)	- 기획공연 입장권 연간 4장 - 기획공연 오픈 전 안내, 할인 및 우선 예매적용 (20%)	3년

기본예우

- 홈페이지 후원자-기업명 표기, 분기별 후원회 소식지 발송
-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로비 벽면 회원 명판 부착
- 정기간행물 및 기획공연 프로그램책 후원자-기업명 표기
- 가입기념 선물 증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30조 제1호에 의하여 후원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후원금은 구름회원 이상 등급에 한하여 3년 약정 분납이 가능합니다.

※ 회원기간이 만료되면 회원자격은 유지되나 회원혜택은 정지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분들

(※가나다순)

달누리	외
성낙경 ㈜한발기술 대표이사 최도현 ㈜대원인물 대표이사	강경애 리디안 우쿨렐레 오케스트라 단장 강정식 ㈜삼원목재 대표이사 김복환 1급부평자동차공업사 대표 맹익재 ㈜클라이젠 대표이사 박경운 박경운세무회계사무소 대표 박명식 부평단위농협 감사 박옥진 前 부평구문화재단 대표이사 윤일영 前 부평구청 의회사무국장 이혜민 前 부평구립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 정지연 ㈜광원건설 회장 최창석 ㈜은성산업 대표 허난영 (재)세종문화회관 팀장
꽃누리	
김영무 ㈜하온아텍 대표이사 노태손 성크박문고 대표 서태호 ㈜난다 고문 이경환 ㈜비에이치 대표이사 이광복 ㈜동서식품 대표이사 이희재 ㈜우성아이비 대표이사 정규형 의료법인 한길안과 이사장 조덕형 ㈜덕성그린텍 대표이사	

별누리	가람
구흥회 ㈜부평역사 대표이사 기중현 ㈜연우 대표이사 김성국 거궁 대표 김용택 은세계교회 GVC 목사 배정태 더페이스샵 대표 심수일 ㈜삼정가스공업 대표이사 이승희 ㈜두진금형 대표이사 정세교 ㈜상호나노텍 대표이사 최백경 ㈜경인 대표이사 최주송 ㈜대경아이스 대표 함국중 ㈜부원산업 대표 홍중국 삼환여객 대표	고동희 부평구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장 고현영 안국노무법인 대표 곽경전 前 부평구문화재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유완 관세법인 샤인 관세사 류현숙 KB국민은행 산곡동지점장 박영욱 삼우환경 대표 박창호 ㈜인영자동차공업 대표이사 신미영 디자인넷 대표 신종백 부평구지역사회보장협의회 회장 신희식 아침을여는사람들 대표 심수연 부개3동 주민자치위원 안중명 정수미크론 대표 오중석 ㈜한국통운 대표이사 윤대기 법무법인 로웰 변호사 이계찬 ㈜지인조경 대표이사 이희수 前 부평구문화재단 도서관본부장 조정애 최근영 글로벌녹색경영연구원장 최병운 (사)서도창배맹이연구보존회 부이사장 한유순 ㈜우신컨택트 대표이사 황명희 가현텍스 세무사 황유경 前 부평구문화재단 기획경영본부장

구름
KB국민은행 산곡동지점 권영조 ㈜영메디칼바이오 대표이사 민병현 ㈜평화환경 대표이사 박석범 인그리디언코리아 유한회사 상무 박인덕 ㈜상보인터내셔널 대표이사 배수진 ㈜송우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안용현 ㈜한국그린환경 대표이사 전봉운 ㈜부평환경 대표이사 정광훈 유카스에너지 대표이사 정해자 ㈜삼원환경 대표이사 최승민 ㈜스윙 대표 허춘석 ㈜동일환경 대표이사

부평구문화재단 문화나비 소개



아름다운 참여, 문화나비

부평구민의 작은 날갯짓이 모여 거대한 문화도시 부평을 만들어가기 위한 캠페인 문화나비는 부평구문화재단과 부평구민, 상공인, 예술단체들이 뜻을 모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나비 기부금은 부평구문화재단 목적사업인 지역문화예술 지원사업에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신청방법

- ① 온라인신청 부평구문화재단 홈페이지(www.bpcf.or.kr) > 재단소개 > 문화나비 > 문화나비 가입하기
- ② 신청문의 032-500-2016

문화나비 회원 구분 및 예우

개인	연 3만원 (1년 단위)	- 부평구문화재단 홈페이지 및 정기간행물에 기부자 명단 공개 (비공개 신청 가능) - 부평아트센터 기획공연 20~50% 할인 - 부평아트센터 기획공연 티켓 우선예약 - 부평구문화재단 후원의 밤 행사 초청(1인 2매) - 부평구문화재단 교육 행사 정보 제공
단체	월 2만원	- 부평구문화재단 홈페이지 및 정기간행물에 기부자 명단 공개 (비공개 신청 가능) - 회원 점포 및 사무실에 문화나비 현판 부착(현판식 진행) - 부평아트센터 기획공연 50% 할인(연 10매/7만원 이하 티켓 기준) - 부평아트센터 기획공연 티켓 우선예약 - 문화나비 가맹점 연계 프로모션 진행 - 부평구문화재단 후원의 밤 행사 초청(1인 4매) - 부평구문화재단 교육 행사 정보 제공
	월 3만원	- 부평구문화재단 홈페이지 및 정기간행물에 기부자 명단 공개 (비공개 신청 가능) - 회원 점포 및 사무실에 문화나비 현판 부착(현판식 진행) - 부평아트센터 기획공연 50% 할인(연 20매/7만원 이하 티켓 기준) - 부평아트센터 기획공연 티켓 우선예약 - 문화나비 가맹점 연계 프로모션 진행 - 부평구문화재단 후원의 밤 행사 초청(1인 4매) - 부평구문화재단 교육 행사 정보 제공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30조 제1호에 의하여 후원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후원해주시는 분들

(※가나다순)

개인
강은숙 강은영 강장희 공현정 권진희 김경민 김소희 김유정 김종삼 김종수 김종필 김희영 노철환 류대희 맹효재 박건호 박광림 박귀정 박미연 박정혁 박지영 박진수 배철홍 송용일 송종준 신소영 신종순 신현주 안용철 안효정 엄정귀 여건봉 우사라 윤영호 윤은택 이경아 이금강 이미숙 이미영 이상현 이설아 이소영 이재홍 이종란 이해진 이화열 임미영 장정현 전수현 정영진 정하윤 차지영 최유나 최은영 최은자 최인호 최인화 최현미 홍지연 황현식

단체
1급애니모토자동차 신한우왕국 정육식당 남도추어탕 심마니 한방웃담 대명크렌시아침대 에스에스오토론 드림디포 부평점 열우물생고기 동아좁마 월드인슈 명가머슴보쌈 유카스에너지 열우물주유소 몽순이 해물탕 유한실사현수막광고 (재)미래산업정책연구원 인영자동차공업사 밀레 정기향 옛날 육개장 바우네 나주곰탕 정밀 박영택로드 추억나누기 백두산 참숯화로구이 취선 부일정육식당 토부리병천순대 갈산점 순가락반상 마실 한옥마당

정기간행물 독자의견 QR코드



정기간행물 「BO:DA」와 함께하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올해는 어떠셨나요?

조금 더 다양한 콘텐츠로 「BO:DA」를 만들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가장 좋았던 내용이나 지적하고 싶은 부분, 바뀌었으면 하는 것들,

다양한 의견을 담아서 보내주세요.

우측상단에 있는 QR코드를 통해 의견제출이 가능합니다.

| 주요 배포처 |

부평아트센터, 부평생활문화센터 공감168, 부평문화사랑방, 부개도서관, 삼산도서관, 부평기적의도서관, 청천도서관, 갈산도서관, 부개어린이도서관, 부평구청소년수련관, 부평구 22개동 행정복지센터 등.

「BO:DA」는 무가치로 발간되어 별도의 구독 요청이 어렵습니다. 주요 배포처에 방문하셔서 비치된 간행물을 무료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주요 배포처 외에 운영하는 장소에 「BO:DA」를 비치하고 싶으신 분은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032-500-2018



「BO:DA(보다)」에 실린 글과 사진은 부평구문화재단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게재된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부평구문화재단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발행인	이영훈	- 발행처	(재)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재단,
- 편집인	홍준식		인천광역시 부평구 아트센터로 166(십정동) 21440
- 편집기획	김유정, 현도연	- 전화	032-500-2000
- 취재·편집·디자인	한디자인	- 팩스	032-506-9021
- 발행일	2020년 12월 24일	- 홈페이지	www.bpcf.or.kr